

**게리 리트벨트의 색채조형성에 관한 연구

- 가구 디자인과 쉬뢰더 주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lor-Plasticity of G. Rietveld

- focused on furniture design and Schröder House -

주서령*/Ju, Seo-Ryeong

Abstract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esign methods in the Schröder House executed by the Dutch architect G. Th. Rietveld. The plastic principles which underlies the architecture design are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ew structural joint system(Cartesian Coordinate System)' and

'Color-Plasticity' which characterized a series of his furniture design from 1918 to 1924. It indicates that Rietveld attempted to realize the simplicity, clarity and flexibility of spatial expression in his first independent architecture by the application of technical skill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his early days.

키워드 : 색채공간, 색채조형

I. 서론

1. 연구 배경

본 논문은 더 스테일 De Stijl 운동의 대표적인 건축가로 대표되는 게리 리트벨트 G. Rietveld의 <쉬뢰더 주택 Schröder House>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색채 조형성을 파악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더 스테일 예술 운동은 화가인 몬드리안 P. Mondrian과 예술 이론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반 두즈버그 van Doesburg의 예술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 그룹의 예술가들은 대부분 화가들로서 초기 추상회화 작업을 통하여 화면에서 관습적인 투시도를 포기하고, 색채를 조형 도구로 삼아 새로운 '화면의 공간 만들기'에 주력하였다. 그들에게 공간이란 가시적 화면의 구조가 제시하는 '物理的 空間'이 아닌, 선, 면, 색과 같은 화면의 순수한 구성요소들과 화면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구축되는 암시적인 '知覺的 空間'을 의미한다.¹⁾ 이러한 시각적 공간의 인정은 색채를 공간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조형의 도구로서 승인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가 출발하는 기본적인 관점이다. 그들의 이러한 색채 구축적 공간 개념²⁾은 건축의 3차원 공간으로 응용되었으며, 공간, 형태, 색채를 통합적인 결합체로 인정하는 조형적 건축 Plastic

Architecture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이론은 건축으로 실체화되지 못하고 단지 계획안에 그치고 말았다. 오히려 이들보다 이론적 기반이 약한 게리 리트벨트에 의하여 쉬뢰더 주택이라는 더 스테일의 대표적인 건축으로 완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근대 예술 비평가들 사이에 많은 논의와 토론을 야기하였다. 쉬뢰더 주택은 단지 근대 추상 회화를 건축에 모방한 '회화적 건축 painterly architecture'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과 더 스테일의 이론가들이 실현하지 못한 '총체적 예술'의 이상을 실현한 더 스테일의 기념비적인 건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어떠한 이론가들은 쉬뢰더 주택의 진정한 가치는 리트벨트의 독자적인 조형의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한 편의 주장을 따르기 보다는 쉬뢰더 주택의 공간, 형태, 색채를 포괄하는 색채 조형적 분석을 통하여 더 스테일의 건축 조형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함께 리트벨트의 독자적인 건축 조형원리를 명백하게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게리 리트벨트 G. Th. Rietveld는 그의 일생(1888-1964)을 통하여 215여 가지의 가구, 200여 채의 건물 그리고 250여 가지의 응용 제품들을 디자인하였다. 하지만 이 중 더 스테일 그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시기의 작품은 그 명성에 비하여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그의 전시기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1917~1924년 사이의 작품을 중심으로 색채 조형적 수법들을 유형, 분류하였다. 이와 동시에 각 작품들과 관련된 더 스테일의 선언문과 평론 및 이론적인 소론들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작품에 대한 조형적 정의를 객관적으로 보완하였다.

게리 리트벨트의 건축조형의 독창성은 가구 디자이너로서의 숙련의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화가로부터 출발하여 화

1) "공간이란 측정할 수 있고 한정된 표면이 아니라, 형성의 수단(선, 면, 색)과 화면과의 관계성에서 발생하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공간은 요소들(선, 면, 색)을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특별한 시각적 긴장을 의미한다." Theo van Doesburg, Principles of Neo-Plastic Art, 1925, trans. by Janet Seligman, Lund Humphries, London, 1969.

2) 김현철의 논문에서는 더 스테일의 색채조형을 색-공간 구축성과 표현성으로 고찰하고 있다. 반 두즈버그의 색-공간 구축성과 표현성 실험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2권 제 7호 1996.7.

* 정회원, 경희대학교 전임강사

** 본 논문은 1995년 경희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한 결과임.

면에서 공간 구축의 능력을 키워온 대부분의 더 스테일 예술가들과는 달리 이미 초기의 가구 디자인을 통하여 공간 조형의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특히 그가 가구 디자인을 통하여 정립해 온 독자적인 형태 조직의 수법은 그의 건축 작품 곳곳에서 재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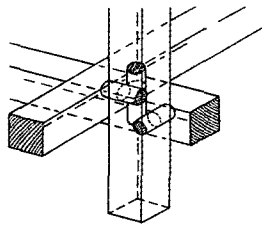
그러므로 본 연구는 1917-1924년 사이의 초기 가구 디자인 분석을 기초 단계로 하여 출발하고 있으며, 1920년 이후 시작되는 그의 실내 디자인 작품에서 포착되는 가구와 공간과의 연계적 사고를 그의 건축조형을 분석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 두고 있다. 이러한 두 단계를 분석의 틀로 삼아, 쉬뢰더 주택을 대상으로 게리 리트벨트의 색채 조형적 수법을 정리하였다.

II. 본론

1. 가구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1-1. 가구 구조법의 고안

그의 가구 또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독창적인 가구 구조법이다. 그는 1916년 이후 새로운 부재의 조직법을 실험하기 시작하였다.³⁾ 그의 가구 구조법은 데카르트 좌표 시스템(Cartesian Coordinate System, Cartesian Knoop)에 의거하고 있다. 수학적으로 데카르트 좌표 시스템은 3개의 좌표축이 하나의 점(원점)을 통과하는 시스템이지만 리트벨트의 가구 접합에서는 각 부재들의 접합 방법에서 각 부재들이 상호관입과 같은 실제적인 접합의 방법 대신에 각 부재들이 한 측면만을 접점으로 가지면서 상호 직교 교차하면서 접합한다. 즉 시각적으로 모든 부재들은 서로 미끄러지면서 단지 한 접점만을 가짐으로서 조직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꽃임축(dowel)으로 구조를 보강하고 있다. <그림1>



<그림1> 리트벨트의 가구 부재의 접합법

이러한 데카르트 좌표접합의 방법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18년의 유아용 의자였다.⁴⁾ 이 유아용 의자는 반 두즈버그에 의하여 최초로 더 스테일지에 발표한 작품이기도 하며, 이 작품에 대하여 리트벨트 자신이 “나는 이 작품을 통하여 아주 필수적인 부재만으로 사물 자체의 명확함을 부여할 수 있는 대칭성을 성취하려고 하였다.....목재 접합 시스템은 단순함과 명확함의 목적을 달성해 주었다. 또한 각 부재의 끝이 접

3) 그는 1916년 Andriaan van Ostadelaan in Utrecht의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가구의 구조법을 실험하였다.

4) 이 의자는 리트벨트가 H.G.j. Schelling의 첫 아이를 위하여 제작한 것이다.

합점을 지나서도 연속되면서 조형의 강력한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은 표면에 의존하는 구축의 방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재들을 조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데 있다”⁵⁾ 라고 평가한 바와 같이 그의 새로운 가구 구조법은 새로운 조형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용 의자는 그 부재의 수가 너무 많아 조직의 명확함이 전체의 형에 비하여 약화된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그의 새로운 구조법에 의한 진정한 조형적 완성품은 <적청의자 Red and Blue Chair, 1918>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적청의자는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서 가구 구조법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의자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 7개의 레일 부재, 6개의 기둥, 팔걸이를 위한 2개의 버팀대, 그리고 2개의 판재. 그는 의자라는 관습적인 형태를 최소한의 각자와 판재로 해체하였고 이들 요소들을 그의 새로운 구조 시스템에 의거하여 재 구축하였다.

큐퍼 Küper는 특히 리트벨트와 반 데 레크 van der Leek과의 친교적 관계에 근거하여 리트벨트의 새로운 가구 구조법의 전개를 더 스테일의 예술 이론과 관련짓고 있다.⁶⁾ 더 스테일 예술 운동의 기반이었던 신조형주의는 자연 세계의 요소를 최소한의 기본적 요소들로 압축하고 그 요소들을 다시 수직, 수평이라는 새로운 관계적 문법으로 재조직하는 ‘보편적인 질서’를 출발로 하였다. 리트벨트 역시 전통적인 안락의자를 출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가구 구조법의 고안은 그 당시 더 스테일의 화가들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3차원적인 실제적 관계를 제시한 결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⁷⁾

리트벨트의 형태의 조직법은 신조형주의의 “등가적인 관계의 평형”이라는 조형이론⁸⁾ 과 부합되어 그의 더 스테일 그룹의 가입을 독려했으며, 더 스테일의 신조형주의를 공간조형 원리로까지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한편 이러한 형태는 새로운 공간효과를 연출하였다. 일반적인 안락의자는 공간을 한정하는 안정적인 형이었다면 리트벨트의 의자에서 각 부재들은 기존의 안락의자와 같이 내부에 공간을 담고있기는 하지만 이 공간은 주변의 각 부재들의 축을 따라 내부에서 외부로의 공간의 운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에 대하여 바로니 Baroni는 ‘reciprocal dynamism’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⁹⁾ 이러한 조형의 역동성은 새로운

5) G. Rietveld, De Stijl(1919), 9, 102, suppl. XVIII, Küper, Marijke and Zijl, Ida van, the complete works of G. Rietveld, Centraal Museum Utrecht, 1992, p.72에서 재인용.

6) Küper, ibids., p76 이 당시 리트벨트는 더 스테일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1912년 그룹의 일원들과 같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적이 있어 개인적인 친교를 가지고 있었다.

7) Brown, Theodore M., The Work of G. Rietveld architect, pp29-30. Brown은 더 스테일의 초기의 미학적 원리의 정립에 있어서 게리 리트벨트의 가구 디자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역설하고 있다. 데 스틸 그룹의 건축가인 J.J.P. Oud의 <공장 프로젝트, 1919>를 예로 들어 이 디자인은 리트벨트의 초기 의자디자인에서 보여지는 부재들의 구조적 관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8) 더 스테일 예술 이론을 대표하는 신조형주의는 순수한 관계성의 원리로서 정의할 수 있다. 자연을 대표 할 수 있는 압축된 보편적인 요소(선, 색면)들의 등가적인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평형 상태의 예술이 탄생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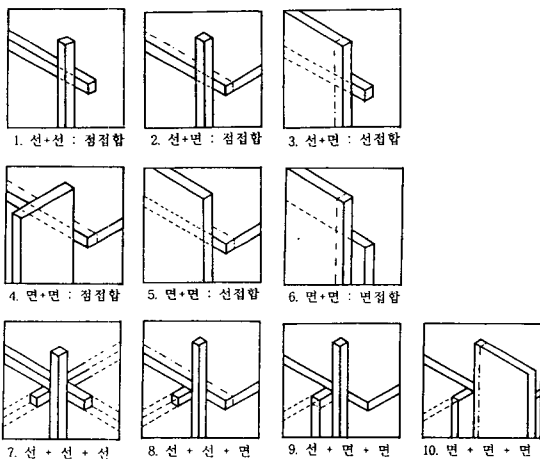
근대 건축의 출현을 예시하고 있다.

리트벨트는 1923년경, 가구 디자인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였다. 비대칭과 면 구조의 방법(베를린 의자, 1923)¹⁰⁾가 또다시 새로운 가구 구조법을 탄생시킨 것이다. 역사적으로 의자를 지지하던 다리가 사라지고 그 대신 면의 비대칭적인 구조에 의하여 다소 조심스러워 보이는 새로운 의자의 구조가 탄생하였다. 비대칭의 구성원리는 그의 가구 디자인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예이지만 신조형주의의 이론에서는 '비동등성의 평형'이라는 원리로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가구 구조법의 출현은 더 스텔의 발전된 미학에 대한 상호교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¹⁾

선재와 비교하여 면재는 공간을 한정하는데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면재의 구조적 도입은 그의 가구 조형이 건축조형의 형태에 근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쉬뢰더 주택 구조를 간략화 한다면 베를린 의자의 구조와 유사한 면재들의 구축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리트벨트가 일련의 실험적인 단계를 거쳐 제시하게 된 가구구조법은 <표 1>과 같이 정리되며, 이 유형들은 쉬뢰더 주택의 구조적 방식으로 채택된다.

<표 1> 리트벨트 가구 부재의 접합 관계 유형¹²⁾



1-2. 원색의 도입

리트벨트의 삼원색 사용은 유아용 가구와 완구의 제작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녀를 위한 <놀이용 수레, 1919>에 빨강, 노랑, 파랑의 원색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초기의 삼원색의 도입은 신조형주의의 원리를 따르려는 미학적인 목적보다는 단순하게 자녀를 위한 단순한 배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¹³⁾ 하지만 1919년경 반 두즈버그가 색채디자인한 공간에 가구디자인을 의뢰받아 방문한 그의 원색의 色彩空間¹⁴⁾은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으며 그는 이후 더 스텔 그룹의 구성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삼원색을 추상적인 도구로 삼는 조형작업으로부터 영향받았다. 하지만 이 시기에 몇 유아용 용품을 제외하고는 가구들은 채색되지 않거나 또는 단색(흰색 또는 회색)으로 채색되고 단지 가구 부재들의 좁은 단면에만 대비되는 색으로 마감되었다.

가구에서 색채의 적극적인 채용은 <엔드 테이블 End Table, 1923>로부터 시작되었다. 부재의 접합법에 있어서는 예외의 방법으로 관입의 방법이 사용되었지만 색채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본격적인 색채조형의 수법을 출발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면재의 채색에 있어서 단면과 주면의 색채를 다르게 채색하는 수법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分離彩色法'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채색법은 삼차원적인 면재를 2차원 면들의 조직으로 보이는 효과를 유발한다. 판재는 상판의 면과 측면의 면으로 분리되어 보이고 상판은 마치 공중에 부유하는 것 같은 비물질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상판을 지지하는 얇은 노랑색의 선재는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재라는 것을 망각하게 하고 다만 조형성을 위하여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리트벨트의 채색법은 부피를 가지는 재료를 추상적인 색면들의 조합으로 치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베를린 의자>의 채색법에서는 그의 또 다른 조형어휘를 볼 수 있다. 이 의자는 무채색으로만 채색된 것이 특징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특징은 이 의자의 면재들은 각기 단일한 색으로 채색되어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채색법을 '單位彩色法'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수법은 의자 부재들의 각각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부재를 순수한 단위 요소로서 인정하고 이러한 순수요소들의 관계적 구축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적정 의자>는 1923년 삼원색에 의하여 재채색되었다. 이 의자에서는 상기의 두가지 상반되는 수법이 혼합되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각 부재의 기능이 그 위치에 따라 다른 것과 같이 색채는 각 부재들의 기능과 형태를 감안하여 부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다. 각 선재에는 단면을 분리하여 채색하는 수법이 채택되었고 면재에는 단일한 채색 방법이 선택되었다. 선재들은 이 의자의 하중을 받는 중요한 구조적 부재로서 선재들의 접합적 구조에서 각 선재가 향하는 방향의 단면에 노랑색을 채색함으로써 선재들의 구조적 관계를 강조함과 동시에 선재들의 힘의 방향성을 강조하여 전체적으로 역동적인 효과를 띄고 있으며, 이러한 명쾌한 구조를 위해서는 원색의 면재들은 다소 단순한 방법인 동일한 색으로 처리하여 전체조직의 명료한 관계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리트벨트의 조형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색채, 형태, 공간간의 상호관계성이다.¹⁵⁾ 그러므로 색채조형에 있어서도 그가 의도한 형태와

9) Baroni, Daniele, The Furniture of G. Rietveld, Barroni's Educational Series Inc., 1978, p.42

10) 이 의자는 1923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전시회에서 훗자와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완성한 전시 파빌리온의 실내를 위하여 디자인되었다. 이 전시공간에서 전체적인 실내디자인은 훗자가 담당하였고 리트벨트는 의자와 테이블만을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계기로 이 의자는 <베를린 의자>라고 명명되었다.

11) "12. 대칭과 반복: 새로운 건축은 대칭의 단조로운 반복, 사물의 정확한 분절이나 거울의 이미지와 같은 경직된 평형을 피한다. 새로운 건축은 동등하지 않은 부분들의 균형된 관계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부분들의 同等性 equivalence은 동등성equality보다는 非同等性unequality의 平衡 equilibrium을 통하여 얻어진다.", Theo van Doesburg, Toward a Plastic Architecture, 1924, Vol. VI, No. 6/7, pp78-83, Jaffé, Hans, De Stijl, Thames and Hudson, 1970.

12) Kaya Oku, Composition of Form and Use of Color in the Schröder House of G. Th. Rietveld, 日本 建築學會論文報告集, No.450, 19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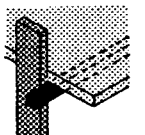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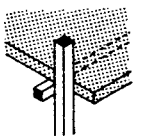

13) Küper, The Formative Years of De Stijl, p.272, 1919년 8월 그가 아우드에 쓴 편지에서 설명이 된다.

14) Interior B. de Lig

공간의 개념에 적합한 색채의 종류와 위치들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정 의자>에서는 부재들의 독자성보다는 데카르트 좌표접합에 의거하는 부재들의 집합적 관계에서의 역동적 구조체계의 이미지가 더욱 중요하였으며 또한 전체적으로 강렬한 원색의 대비를 사용함으로써 의자는 그 기능적인 실체를 잃어버리고 추상적인 공간으로 인지된다. 하지만 <베를린 의자>에서는 의자 각 부재들에는 전체 구성의 요소라는 독자성이 부여되어 각 요소가 다른 독립적인 색을 부여받으며 이들의 집합적 관계는 매우 구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리트벨트의 가구 디자인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색채 조형 수법과 그 특성을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리트벨트의 색채조형수법은 構築 대 非構築이라는 대립적인 특성을 담고있다고 할 수 있다. 김현철의 '더 스테일의 조형공간에 관한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립적인 특성을 조형예술의 이중적 측면의 노정으로서, 구축적이면서 동시에 해체적인 "공간 놀이"로 논술하고 있다.¹⁵⁾ 즉 3차원의 형을 구축함과 동시에 원색의 도입과 분리 채색적 조형에 의해 다시 추상적 색면의 관계성으로 회귀시키면서, 조형물을 비물질적인 색채 공간의 추상체로 승화시켰다. 또한 가구의 각 부재들의 단위 채색적 조형에 의한 독립적 지위의 강조는 관습적인 가구 구조의 위계를 파기하고 부재들의 자립적인 구축적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2> 리트벨트의 채색의 기본 수법

| | 채색법 | 예 | 특성 |
|-----------|---|---|--|
| 분리채색법 (S) |  | End Tabl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부재의 각면을 서로 분리하여 대비되도록 채색하는 방법 입체성 비물질화 추상화 역동성 |
| 단위채색법 (U) |  | Berlin Chai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의 단위부재를 단일한 색으로 채색하는 방법 단위부재의 표현보다는 전체의 조직성의 강조효과 구축적 단위부재의 요소화 |
| 혼합 |  | Red and Blue Chair  | |

15) 리트벨트는 시각을 세가지의 시각작용으로 분류하였다: '색채보기', '형태보기' 그리고 '공간보기'.

16) "더 스테일의 예술가들은 조형공간을 이중적으로 파악한다. 조형공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축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나서는 이 구축된 공간에 내용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공간이 예술 영역에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표현해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의 이중성이 회화와 건축에 공통되는 바, 중략.....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직업이나 예술가들의 개인적 기질의 차이로 구분해 보았던 것을 "공간성의 이중적 놀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해소시킬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김현철, 서문 요약본, Kim, Hyun-Cheol, De Stijl en Qu te de la Spatialit : 1917-1944, Th se de Doctorat du Nouveau R gime.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1993.

2. 공간조형의 여휘

2-1. 공간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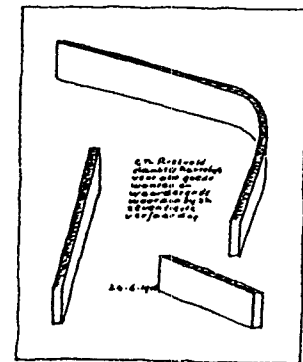
리트벨트의 가구 구조법은 새로운 공간을 위한 실험대였다. 그는 익숙한 대상을 통하여 신조형주의라는 조형원리를 실험하였으며, 이 결과 근대 건축의 열망이었던 '개방적인 평면'을 성취해낼 수 있었다.

리트벨트 자신은 공간만들기에 대하여 후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공간을 인지하는 것은 세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내부 대 외부, 폐쇄 대 개방 그리고 밝음 대 어둠. 그러므로 우리가 형태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들이 동등한 평형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직각에 기준한 형태와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형의 형태를 사용한다면, 내부는 외부와 완벽하게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외부는 완벽하게 내부로부터 배제되며 내부는 완전히 외부로부터 폐쇄되는 것이다..."¹⁷⁾

이를 근거로 한다면, 그는 내부 대 외부, 폐쇄 대 개방, 밝음 대 어둠이 동등하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가 구분될 수 없으며 그 결과 공간적으로 상호관통되는 개방적 평면을 이상적 평면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간만들기의 원칙은 1923년 반 두즈버그, 에스테렌, 리트벨트 3인이 공동으로 서명한 더 스테일 선언 '- □ + = R',의 'VI. 폐쇄성을 파괴하여 우리는 내부와 외부의 이중성을 제거한다.'라는 문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리트벨트가 그의 70세 생일을 기념하여 감사의 표시로 만든 카드에서 이러한 공간을 조직하는 원리가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다.<그림 2>



Rietveld; "thank-you card" made on the occasion of his 70th birthday, 24 June 1958

<그림 2> G. Rietveld, 'thank-you card'

반 두즈버그는 다음과 같은 조형적 건축의 원리들을 일련의 <파리 프로젝트>를 통하여 건축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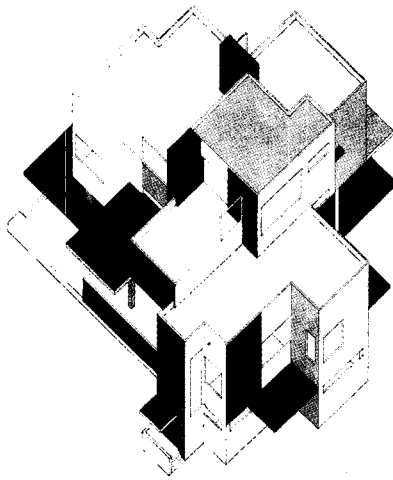
"7. 새로운 건축은 어떠한 수동적인 순간도 가지지 않는다. 또한 죽은 구멍(창)의 사용을 포기하였다. 창문의 개방성은 벽, 표면의 폐쇄성에 대하여 활동적인 의미를 가진다. 어디에도 구멍이나 빈 주제는 발견

17) Rietveld, "Architeture", 이 글은 1958년 강연한 내용으로 1959년 De Nieuwe Stem에 출판되었다. Kuper, op. cit., pp.52-53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대비에 의하여 결정된다.

8. 평면. 새로운 건축은 벽을 개방한다. 따라서 내부와 외부의 명확한 분리는 제거되고, 전체의 벽은 최소의 지지점으로 축소된다.”¹⁸⁾

하지만 건축가 에스테렌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모서리를 개방하는 구조를 실현할 수 없었다. (‘죽은 구멍’ 즉 일반적인 창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단지 보이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을 무채색으로 채색함으로써 삼원색의 색면만을 솔리드한 벽면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그가 <개인주택, Maison Particulière, 1923>을 위하여 제작한 <대구성, Counter-Construction>, <채색구축 Color Construction>, <시공간의 구축 Construction de L’Espace-Temps> 등의 작품에서 색면만을 추출하여 진행한 색채조형 실험이 이를 입증한다. 반두즈버그에게는 색면들의 관계성이 제시하는 조직만이 건축공간으로 의미를 가질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색면공간은 건축구조로 자리잡힐 수 없었다. 단지 건축가가 제시한 벽면에 부가되어 채색되었을 뿐이었다. <그림 3>



<그림 3> 반 두즈버그의 개인주택, 1923 : 서적

이에 반하여 리트벨트는 자립하는 색면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즉 이미 자립성을 확보한 (베를린 의자)의 면제는 <쉬뢰더 주택>에서 색벽으로 치환되었을 뿐이다.

2-2. 색채공간과 가구의 연계적 고찰

가구 뿐만 아니라, 실내디자인에서 원색을 사용한 첫 예는 1922년의 의사 하르도프 Dr. Hartog 사무실이었다. 천정과 바닥은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L자형 색면이 서로 교차되도록 채색되었고, 벽은 분절된 여러 단계의 무채색으로 처리되었다. 이 방의 집기들은 리트벨트가 디자인 한 것으로 특히 천정에 매달린 램프와 책상 측면에 위치한 서류함에서 그의 구조적 원칙에 대한 철저함을 엿볼 수 있다. 이 실내디자인에서 가장 핵심은 벽면의 커다란 붉은 색의 원으로, 색채가 적극적인 실내 공

간의 조형도구로서 사용됨을 선언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벽면에 부가되는 색면은 표현의 요소가 아니라, 공간 한정 도구였다. 그는 이미 형태가 주어진 실내 공간에서 그가 원하는 공간의 디멘션을 재조절하기 위하여 색면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만약 공간의 길이, 폭, 높이 중 어느 하나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피즐 맞추기’와 같이 색채를 도입해서 적절한 안정된 형태가 나올때 까지 이 피즐 풀기를 계속하여 공간 조형적 평형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¹⁹⁾

1921년, 후에 <쉬뢰더 주택>의 주인이 된 쉬뢰더 부인의 빌트스트라트 Biltstraat 주택을 위한 실내디자인에서 벽면을 다양한 회색톤으로 분절, 구성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1923년의 <Show Interior>에서는 벽의 색면들과 긴결한 관계를 갖는 가구의 위치와 배열에 대한 치밀함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의 코너에서 꺾이는 색면과 잠재적 접합의 관계를 갖는 벽의 색면과 천정의 색면의 배열과 같은 수법은 동시기의 훗자 V. Huszár 또는 자트 P. Zwart과 같은 회원들의 작품에서도 종종 사용되었다.

1923년 훗자와의 공동작품으로 참여한 베를린의 <전시 파빌리온>에서 공간디자인과 (베를린 의자)는 총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색채공간으로의 진입을 유도하는 검은 색면의 전개와 이어지는 의자의 등판. 이 관계에서도 직교적 관계가 유효하다. 베를린 의자는 물론 리트벨트의 구조적 창의성에 기초하고 있지만 벽의 색면들을 작은 스케일로 압축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는가 하는 추론과 함께, 색채 공간과의 총체적인 사고의 산물로서 결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 가구와 벽면과의 총체적 공간예술의 전개는 <쉬뢰더 주택>의 곳곳에서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1926년 러시아 화가인 엘 리치스키 El Lissitzky는 <쉬뢰더 주택>을 방문하고 이러한 형식미학의 엄격한 규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2층의 큰 방의 가구들은 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긴밀하게 배열된다. 찬장, 침대 소파 그리고 테이블등은 마치 도시속에서 집이 배열되는 것처럼 배열되고 이 속에는 거리와 블록이 형성된다.”²⁰⁾

즉 색채공간에서 공간의 모든 요소들(가구, 간막이벽...)은 정확한 위치를 배정받게 되고, 이 형식적 질서에 의하여 그가 추구한 조형적 평형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확한 질서를 요구하는 형식미학적 양식은 삶이라는 기능을 담는 건축공간에 무리한 미학적 질서를 요구한다. 즉 거주하는 인간은 의자의 위치 변경까지 고민해야 하는 과도한 질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쉬뢰더 부인조차도 이러한 미학적 질서가 그의 거주 생활의 큰 걸림돌이었다고 토로하고 있다.²¹⁾

18) Theo van Doesburg, Towards Plastic Architecture, 1924, Balijeu Joost, Theo van Doesburg, Studio Vista, 1974. 이 선언문은 <파리 프로젝트> 1년 후에 발표된 것이지만 이미 여러번의 선언문을 통하여 원칙적인 것이 정해져 있었으며, 실험을 통하여 탐색되었던 세부적 조형원리들을 정리하여 ‘조형적 건축을 향하여’라는 글로서 발표된 것이다.

19) Overy, Paul, The Rietveld Schröder House, Interview with Truus Schröder, 1982.

20) Lissitzky, El, Architecture, Housing and Culture, Stroitel naia Promyshlennost, no. 12, Dec., 1926, pp.877-881, Brown, Theodore, op. cit., 재인용 pp.57-58

21) Overy, Paul, p.71. op. 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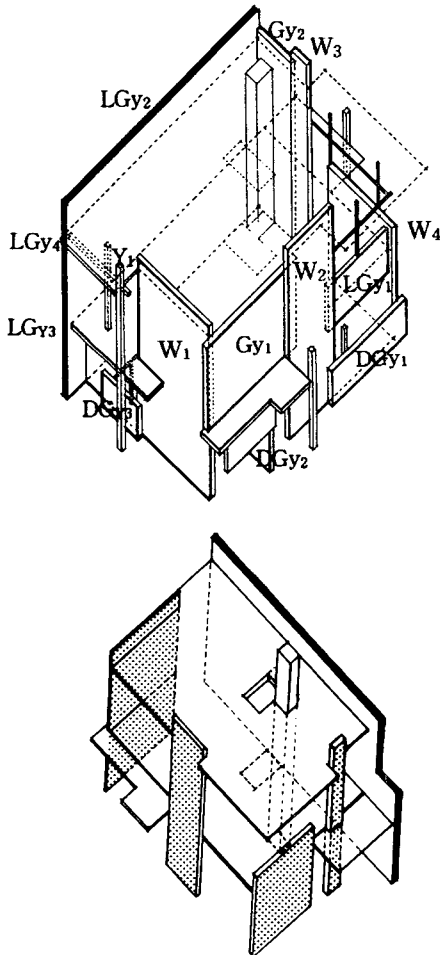
3. 쉬뢰더 주택

쉬뢰더 주택은 1924년 쉬뢰더 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인과 그의 3인의 자녀를 위하여 설계된 2층 주택으로서 Utrecht시 교외의 19세기 양식 연립주택단지의 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는 이미 가구 제작을 통하여 익숙한 공간조형의 능력을 이 주택을 통하여 유감없이 건축조형으로 완성하였다.

〈쉬뢰더 주택〉의 색채조형의 특성은 내부와 외부가 분리된 색채조형의 원리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택의 실내공간은 벽면, 가구, 구조디테일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색채시스템으로 조직되어있다. 하지만 무채색의 외벽은 어떠한 규율로 실내공간과 통합되는 것인가? 외벽은 단지 공간을 한정하는 프레임을인가? 이러한 외부와 내부의 분리된 색채 원칙의 채택은 리트벨트의 미학적 질서의 일관성을 의심케 한다.

3-1. 외부의 색채조형 분석

기초적인 건축조형은 외벽을 구성하는 4개의 벽²²⁾과 지붕 슬라브를 포함한 5개의 면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층을 구분하여 주는 2층바닥 슬라브, 그리고 기초 프레임에서 개구부를 부분적으로 폐쇄하기 위하여 사용된 작은 단위의 벽판들이 전체의 공간의 구축을 보조하고 있다. 기초 조형을 맡고 있는 5개의 벽면은 지붕을 제외하고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서로 직교적 관계로 위치하고 있어 '잠재적인 접합'을 암시



〈그림 4〉 쉬뢰더 주택의 외부 색채조형 분석도

22)전체는 5개의 외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옆집과 한 벽을 공유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벽을 제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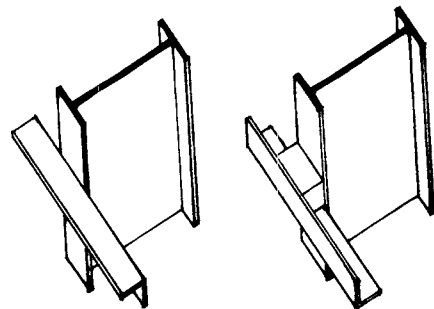
한다.

기초구성에 사용된, 지면으로부터 서 있는 4개의 벽은 흰색(W1~ W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위에 부가되는 작은 벽판들은 주로 세 단계의 회색(LGy, Gy, DGy)으로 채색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흰색으로 처리되어 있다. 특히 이중 정면의 돌출된 베란다의 측면은 흰색으로 처리된 것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색채조형을 분석해 보면 기초 형틀은 흰색으로 구성하고 기초 형틀로 생겨난 보이드 공간을 회색으로서 처리하였다는 기본적인 질서를 파악할 수 있었다.〈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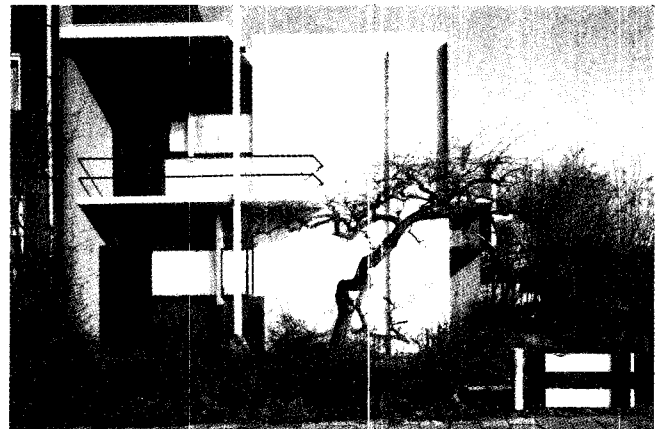
이러한 색채조형은 〈베를린 의자〉에서 사용된 단위채색법과 같은 수법으로서, 리트벨트는 건축을 구성하는 단위 부재에 대한 표현보다는 전체 조직을 강조하려고 하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건축조형에 사용된 단위 부재들의 상호 구축적 관계를 유형화한 결과 그 구축적 관계는 앞에서 제시한 가구 구조의 조직법인 〈표1〉과 같음을 조사결과 확인하였다.

〈쉬뢰더 주택〉에 사용된 선재들은 삼원색과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다. 즉 베란다를 지지하는 기둥이나 들보 또는 창틀 등에서 흰색의 선재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무채색의 견고한 볼륨에 활기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남서 방향의 입면이 이러한 선재의 구성이 돋보이는데, 그 수법은 다음과 같다. 특히 남서 측의 테라스에서 테라스와 지붕 슬라브의 돌출부는 노랑색의 수직 기둥과 두 개의 검은 색의 수평 선재로 지지되고 있다. 이때 두 수평 선재는 상호 교차되는 방향을 취하고 있으며, 검은색으로 처리하여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주택에서 가장 긴 형태의 수직 기둥은 노랑색으로 처리되어 마치 하중의 지지와는 무관한 비물질적인 효과를 가진다. 또한 〈쉬뢰더 주택〉에 사용된 선재들은 강철 형강으로서 그 단면의 형상 때문에 가구 구조법을 따르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리트벨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림5〉와 같이



〈그림 5〉 I형강의 집합 상세도



〈그림 6〉 쉬뢰더 주택의 남서측 입면도:서적

철강의 접합 방법을 변용하여 구조법의 완벽성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철저한 구조법의 이행은 주택 곳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림6>

3-2. 내부의 색채조형 분석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쉬뢰더 하우스의 색채조형은 내부와 외부가 독자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계획되었다. 무채색으로 볼륨을 구축한 외부와는 대조적으로 내부는 강렬한 삼원색의 대비적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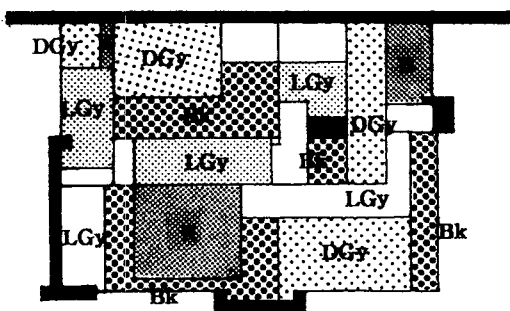
우선 내부공간은 1층과 2층의 계획에 있어서 차별적인 계획으로 처리되어 있다. 1층은 폐쇄적인 벽으로 방마다 분리된 공간, 2층은 개방적인 평면계획으로 계획되어져 있다.

2층은 반 두즈버그가 이상으로 삼았던 '개방적인 평면'의 세심한 실현적 요소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쉬뢰더 주택의 완성을 전후하여 반 두즈버그 자신의 조형에서는 실현하지 못하였지만 새로운 공간의 창조를 위한 더 스테일의 조형 어휘들로서 제시되었다.

"9. 새로운 공간은 개방적이다. 전체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기능적 요구에 따라 분할된다....분리면은 움직일 수 있는 스크린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문 또한 같은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 건축에 있어서 이 다음의 단계는 평면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이다."

리트벨트는 이러한 더 스테일의 조형원리를 완벽하게 쉬뢰더 하우스에서 실현하였다. 2층의 공간은 움직이는 스크린 벽들을 개방하면 완전한 입방체의 개방 공간이 된다. 이러한 입방체는 외부의 독립적인 무채색 면들의 조합에 의하여 구축된 공간이지만 그 내부공간은 이 무채색 면의 내면을 작은 색면들로 분절하여 외부의 色彩空間과는 분리된 色彩空間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내부공간은 바닥면의 기준선에 의하여 기능적으로 분할된다. 신조형주의적 구성의 질서로 배열된 바닥면의 구성은 외부와 같은 다섯 단계의 무채색으로 구성되고 빨강색면을 도입하였다. 빨강색면은 각 실(남아의 방, 여아의 방, 쉬뢰더 부인의 방)에 동등하게 분포되었지만 그 크기와 위치에 의하여 '비대칭적인 평형'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바닥면의 색면들의 경계로서 만들어지는 수직, 수평의 그리드는 움직이는 벽을 지지하는 경계선의 역할을 담당하고 또는 가구의 위치의 지정 그리고 벽면의 분절된 색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공간의 기준선'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실내 공간의 모든 색면들은 이 '공간기준선'에 의하여 그 위치와 크기를 지정받게된다. <그림7>



<그림 7> 쉬뢰더 주택의 2층 바닥면 색채조형 분석도

또한 각 실을 한정하는 색면(벽)은 가구의 배열에 의하여 분할되거나²³⁾

또는 움직이는 슬라이딩 도어의 움직임에 의하여 시간별로 다른 색면 배열을 가진다. 또한 각 실들은 그 공간별로 삼원색의 동등한 구성을 갖도록 구성된다. 가구의 색이나 창틀의 색, 라디에이터의 색까지 개방된 공간의 구성과 각 실별로 폐쇄되었을 경우에도 동등한 삼원색의 긴장된 평형관계를 볼 수 있다.

또한 실내공간의 중요한 색채요소는 가구의 색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리트벨트의 가구 색채조형수법은 <엔드 테이블>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분리채색법' 또는 <베를린 의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부채들간의 독립된 채색 방법인 '단위채색법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주택의 실내공간의 가구는 기존의 디자인된 <적청 의자>, <엔드 테이블>을 제외하고는 '단위채색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단위채색된 가구 중 실내공간을 분할하는 역할을 하는 수납장들 그리고 화장실과 욕실의 매스들은 거의 흰색 또는 검은색의 단일 매스로 처리되었다. (단 굴뚝은 파랑색으로 처리되어 실내 공간의 중심성과 안정성을 부여하는 시각적인 중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작은 수납장이나 캐비닛 등은 파랑색이나 노랑색이 채색되어 공간의 활력있는 색채요소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또한 가구 뿐만 아니라 창틀부재나 난간의 작은 기둥 또는 슬라이딩 간막이벽, 슬라이딩 간막이벽의 지지를 위한 천정의 홈 그리고 블라인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내 구성요소들이 색채요소로서 통합된 색채시스템에 참여한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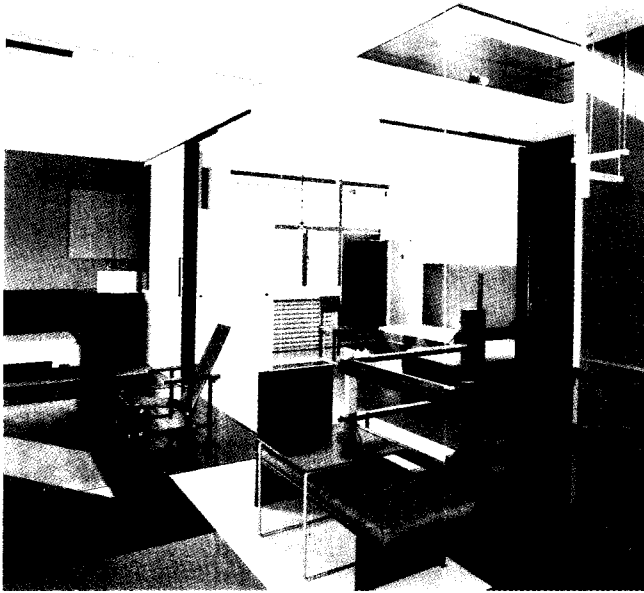
이러한 통합화된 色彩空間을 구축할 수 있는 힘은 엄격 구축적 조직 덕분이다. 실내의 색면들은 항상 다른 색면들과의 공간적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그 크기와 색채 그리고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때, 색면들 사이에는 직교적 관계와 보이드의 공간이 남겨지게 되며, 이러한 수법은 그의 개방 대 폐쇄라는 대립적인 공간을 위한 의도이며, 각 색면들의 방향성이 단절되지 않고 연장됨으로서 공간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그림8>

"구축과 공간디자인은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한다. 나는 구축적인 프레임을 실험하였다. 단위들이 단순히 결합되지 않고 세 방향으로 연속된다. 나의 아이디어는 2차원의 면으로 공간을 한정하는 프레임으로 폐쇄시키는 것이다. 나는 표면의 삼차원적 조합을 실험하였다. 그 결과 공간적인 프레임은 연속하고 있으며 ; 그리고 개방과 폐쇄 사이의 가능한 대비의 수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실내 공간의 모든 요소들은 철저한 조직원리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다. 만약 거주자의 의도로 의지의 위치라도 이동한다면 전체의 色彩空間 구성의 평형관계는 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생활을 담아야할 주거공간에서 이와 같은 완벽한 미학 질서의 추구는 여러 한

23) 예를 들어 여아의 방의 북동쪽의 벽은 침대의 검은 측면이나 벽의 작은 불박이 가구에 의하여 분절된다. 이렇게 분절된 벽면은 회색, 검은색, 흰색으로 분할되어 채색된다.

24) 색채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색면들간의 접합적 관계를 고려할 때는 고정된 형태뿐만 아니라 간막이 벽들의 이동시 발행하는 위치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어느 경우라도 색채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치밀성은 간막이벽의 이동뿐만 아니라, 물 블라인드의 사용 그리고 덧문들의 비사용시 위치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요소가 통합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통제되었다.



〈그림 8〉 쉬뢰더 주택의 2층의 실내전경:서적

계점을 드러낸다.

III. 결론

리트벨트는 더 스테일의 예술 이론과의 교류를 통하여 그들의 색채공간 개념을 건축으로 실현하였다. 그 결과가 〈쉬뢰더 주택〉이다. 이 주택은 더 스테일의 조형적 건축의 실천 원리들을 치밀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그 색채공간의 해석에서는 반 두즈버그와 차이를 나타낸다. 반 두즈버그에게는 형보다는 색의 공간적 가치가 더욱 중요한 실험의 대상이었다. 그는 색채의 공간적 가치에 대한 꾸준한 탐구의 결과로서 건축의 색벽들이 공중에 부유하면서 색채의 상대적인 대비작용에 의하여 원심 또는 구심적인 시각적 운동을 유발하게 되는 시공간의 개념을 '요소주의'라는 건축조형원리로서 제시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리트벨트의 조형은 색보다는 형의 구축적 조직에 기초하고 있다. 즉 독자적인 가구 구조법이 내, 외부 공간이 상호전이하는 시공간을 제시하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리트벨트의 쉬뢰더 주택 이후 건축작업에서, 색채의 적극적인 사용이 사라지는 것이 이를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리트벨트의 건축조형에 대한 장당한 평가는 원색을 건축에 도입한 더 스테일의 건축가로서 보다는 가구에서 실현한 압축적인 구조의 경험을 내, 외부의 경계가 사라지는 개방적인 공간조형으로 승화시켜 근대건축의 간결한 조형의미를 제시한 건축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리트벨트가 〈쉬뢰더 주택〉에서 실현한 색채조형은 건축에 있어서 색채 사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의미로 부각될 수 있다. 이 건축물과 더불어 색채는 더 이상 건축 형태에 부가되는 장식이 아닌, 건축의 공간을 구축하는 필수적인 조형 요소로서, 건축에서 정당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1. Küper, Marijke and Zijl, Ida van, the complete works of G. Rietveld, Centraal Museum Utrecht, 1992.

2. Baroni, Daniele, The Furniture of Gerrit Thomas Rietveld. Barron's Educational Series, Inc. 1978.
3. Overy, Paul, The Rietveld Schroder House. the MIT Press, 1988.
4. Brown, Theodore M., The Work of G. Rietveld Architect. the MIT Press, 1958.
5. Vöge, Peter, the complete rietveld furniture, 010 publishers, 1993
6. Jaffé, Hans, De Stijl, Thames and Hudson, 1970
7. Baljeu, Joost, Theo van Doesburg, Studio Vista, 1974
8. Oku, Kaya, Composition of Form and Use of Color in the Schröder House of G. Rietveld, 日本建築學會論文報告集, No.450, 1993.
9. Kim, Hyun-Cheol, De Stijl en Quête de la Spatialité:1917-1944, Thèse de Doctorat du Nouveau Régime,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1993.
10. 주서령, 건축공간의 색채구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11. 최재석, 건축가 리트벨트 재고, 플러스, 8408

〈접수 1996. 11. 1〉